

서해안 실뱀장어가 안 잡힌다

짚은 강풍·저수온 어획량 급감에 가격 뛰어 kg당 1100만원 거래

전북 서해안의 실뱀장어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치솟고 있다. 19일 전북도와 양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군산과 부안, 고창 등 서해안 지역에서 실뱀장어잡이가 시작됐지만 어획량은 한 척에 하루 150마리 안팎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짚은 강풍과 저수온, 해류 흐름의 변동 등으로 치어들이 제대로

회귀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주시계 정도 크기인 실뱀장어는 바다와 민물을 회유하는 물고기로 남태평양에서 부화한 뒤 난류를 타고 강 하구로 거슬러 올라오며, 조업인 3~5월에 잡힌 실뱀장어는 양반장에서 10개월가량 자란 뒤 시장에 출하된다. 어획량이 급감하자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지난해 kg당(5000~6000마

리) 산지 가격은 5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배 이상 오른 1100여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어획량이 절대 부족하고 가격이 오름에 따라 양반업자들은 중국산 실뱀장어를 들여와 이식하고 있으며 일부 어민은 공유수면에 불법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이동식 뗏목 등을 타고 다니며 무단으로 실뱀장어를 포획하고 있어 사고위험은 물론 어민간 분쟁도

우려된다. 전북 서해안 일대에서는 119척의 어선이 허가를 받아 실뱀장어잡이를 하고 있으며 매년 3~6월에 어선당 연간 1억원 안팎의 짝짱한 소득을 올려 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내 실뱀장어 양만장은 전국 면적의 26%를 차지한다”면서 “현재까지 조업이 부진해 가격이 폭등했지만 5월부터는 포획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거래 가격도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유채꽃밭으로 봄나들이 오세요
한 프로그램으로 열린다.

정읍시 이평면 배평들에 핀 유채꽃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만석보 유채꽃 축제'는 오는 29일 만석보 주변에서 유채꽃밭 걷기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열린다. (정읍시 제공)

도심에 숲 조성 열심현상 해결

전북도가 도심에 숲을 조성해 날로 심화되는 열섬현상을 줄이기로 했다. 전북도는 고층 아파트와 자동차 배기가스의 증가 등으로 도심의 온도가 꾸준히 상승함에 따라 올해 167억 원을 들여 주요 도로변에 16곳(36ha)의 도시 숲과 40여 km의 가로수 길을 각각 만들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시 숲은 도심 안의 국·

도 167억 투입 공한지에 공원형태 녹지공간 확충
공유지와 공한지 등을 활용해 공원 형태로 조성하고 가로수는 도로뿐 아니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에도 심기로 했다.

도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권에 숲을 만들어 생활주변의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도시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인위적 시설물 위주의 공원 대신 산림 형태의 숲을 집중적으로 만들어 열섬 방지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시 숲과 가로수길 조성으로 심화하는 열섬현상을 줄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김응철기자

군산시 대형병원 유치 힘드네

대학병원 분원 무산 등 수년 노력에도 답보... 시민 서명운동 검토

군산시의 대형병원 유치 노력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빠져 있다. 19일 군산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역에 심뇌혈관계와 암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700병상 이상 규모의 3차 의료기관급 대형병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과 대학병원 유치를 팔을 걷고 나섰으나 3년이 되도록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군산시가 전북대병원과 추진하던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유치가 무산되면서 군산시의 대형병원 유치 의지가 한풀 꺾인 상태다. 시가 대형병원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것은 공산단지 등에 대형 기업의 입주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의료여건이 열악한데다 지역 환자의

역의 유출로 시간·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문동신 시장이 지난 선거에서 대형병원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내건 상태여서 구체적인 성과 도출도 절실했다. 시는 이를 위해 그동안 ‘전담반’을 꾸리고 다른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하며 대형병원 유치를 타진했지만, 번번이 의료수요 부족과 막대한 재원 부담 등으로 고배를 마셨다. 올해 초까지 시민의 관심이 컸던 전북대병원 새만금 군산분원 유치계획도 지난 3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심사대상에서 의료수요 부족이 문제가 되면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계획안을 수정하고

오는 8월에 전북대병원 분원 설치를 위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방침이지만 기획재정부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시는 시민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새만금 산단에 기업을 더 많이 유치하고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형병원 유치가 필수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공립 병원이 안된다면 민간의 대형병원이라도 유치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행정력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중 등 외국공무원들 전주 한지공예 체험

19일 전주시 한옥마을에서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각국에서 온 공무원들이 한지 뜨기를 해보고 있다. 이들 공무원들은 전주시도지사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K2H(Korea Heart to Heart)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했으며 앞으로 6개월 동안 전국 3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연수를 한다. 방문단은 이날 한지 뜨기와 함께



전통예절 배우기, 떡메치기 등의 한국문화를 체험했으며 20일에는 새만금 현대자동차 등을 방문한다. /전북취재본부=김응철기자 k0765@

단신

군산 중앙동·중동에 공영주차장

군산시 구도심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중앙동과 중동 등 2곳에 130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조성된다. 군산시는 “중앙동 파출소 옆 부지(1647㎡)를 토지주로부터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공영주차장(60여대)으로 조성하고, 옛 동부교회 부지(1506㎡) 역시 5월 중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주차장이 개설되면 구도심의 극심한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남원 향토박물관 백동연죽 기획전

남원 향토박물관이 19~24일 백동연죽(白銅煙竹) 기획전을 연다. 전시회에는 황영보(중요무형문화재 제65호)씨의 작품 상감민족과 송학죽, 대왕죽 등 다양한 연죽작품 40여점과 일반인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제작과정을 담은 사진 10여점을 선보이고 주말에는 제작 과정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 백동연죽이란 금·은·동을 합금 처리해 전통적인 수공기법으로 만든 담뱃대를 말하는데 황영보씨는 남원에서 전통적으로 제작되는 담뱃대인 오동 상감송학죽의 기능 보유자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전북도가 산림자원보호구역 등에서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를 6월 17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는 자연산 임산물에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약초 등의 불법 채취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로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한 뒤 산나물과 산약초를 비롯해 약용수종인 산청 목, 허깨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 희귀식물을 집단으로 캐가는 행위 가 단속 대상이다. 단속지역은 남원, 무주, 장수 등 3개 시군에 걸쳐 있는 백두대간보호구역 1만7000여ha와 14개 시군 2만6000여ha의 산림보호구역 등 총 4만 3900여ha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김제 벽골제에 민속놀이체험장

김제시는 18일부터 김제지평선축제장인 부랑면 벽골제에 전통가옥과 민속놀이 체험장, 주막과 전통차집, 짚풀공예장, 쌀음식점, 서당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통가옥에서는 숙박체험을 하고 주막과 찻집, 쌀음식점에서는 전통차, 한방차, 순두부, 묵국수, 콩비지 해물과전, 무비빔밥, 청국장, 콩나물비빔밥 등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명인화당은 전통예절, 한학, 선비 체험을 실시하고 짚풀 공예체험장도 상시 운영한다. 이와함께 전통 민속놀이체험장은 투호, 굴렁쇠, 굴리기, 널뛰기, 그네뛰기, 제기차기, 율놀이 등의 민속놀이를 제공한다. /전북취재본부=홍은선기자 hnews@

‘한옥체험+예절교육’ 전주전통문화연수원 개원

한옥을 체험하면서 전통예절을 배우는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이 최근 전주시 교동 한옥마을에 개원했다.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은 전주시가 조선시대 전주관(현 전주시장) 집무실인 동헌(東軒)과 김제시 금구면의 장현식 선생 고택을 한옥마을로 옮겨 활용하는 것이다. 이 동헌은 일본강점기인 1934년 매각돼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로 옮겨졌다가 2008년에 전주시에 기부돼 한옥마을에 복원됐다. 김제 한옥은 1932년에 건립된 독립운동가 장현식 선생의 안채와 중간 채 등 2개 동(棟)으로 이뤄진 고택이다. 그의 후손이 전주시에 기증해 동헌 옆으로 옮겨 지었다. 이 한옥들은 이 같은 역사적 의미와 함께 정교한 건축기술까지 갖춰 문화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통문화연수원은 이들 건물을 하나로 묶어 각종 국내외 회의와 연수, 한옥체험, 숙박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 전통문화연수원에서는 앞으로 다산 정약용의 리더십이나 간재 전우의 사상, 명신보감 등에 대한 특강이 이뤄지고 전통예절과 관소리, 향음주례(鄉飲酒禮) 등을 배우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전북취재본부=김응철기자 k0765@

59
광주일보
1952-2011

붓짐장수 쉬어가던 인심고을, 수백년전 조선시대로의 여행

정읍 청량리 ‘송삼봉 조선동네’로 가을 나들이 오세요

정읍시청에서 직선거리로 12.85km 떨어진 곳에 타임머신을 타고 수백년 전 조선시대로 돌아간 작은 마을이 있다. 이곳에 불을 때 가마솥 한 가득 쌀밥을 짓고, 100개의 장독대 옆 주막집 굴뚝에는 밥짓는 연기가 모락 모락 피어난다. 휘어진 나무기둥에 지푸라기와 흙을 섞어 벽을 만들고, 지붕엔 짚으로 엮은 이엉에 용마루를 얹어 만든 안온뱅이 초가집이 모여있는 이곳은 정읍시 이평면 청량리 ‘송삼봉 조선동네(洞內)’다.

단체연수 · 숙박 · 식사 가능 · 연중무휴
예약전화 063-532-0054
 전북 정읍시 이평면 청량리375-5번지